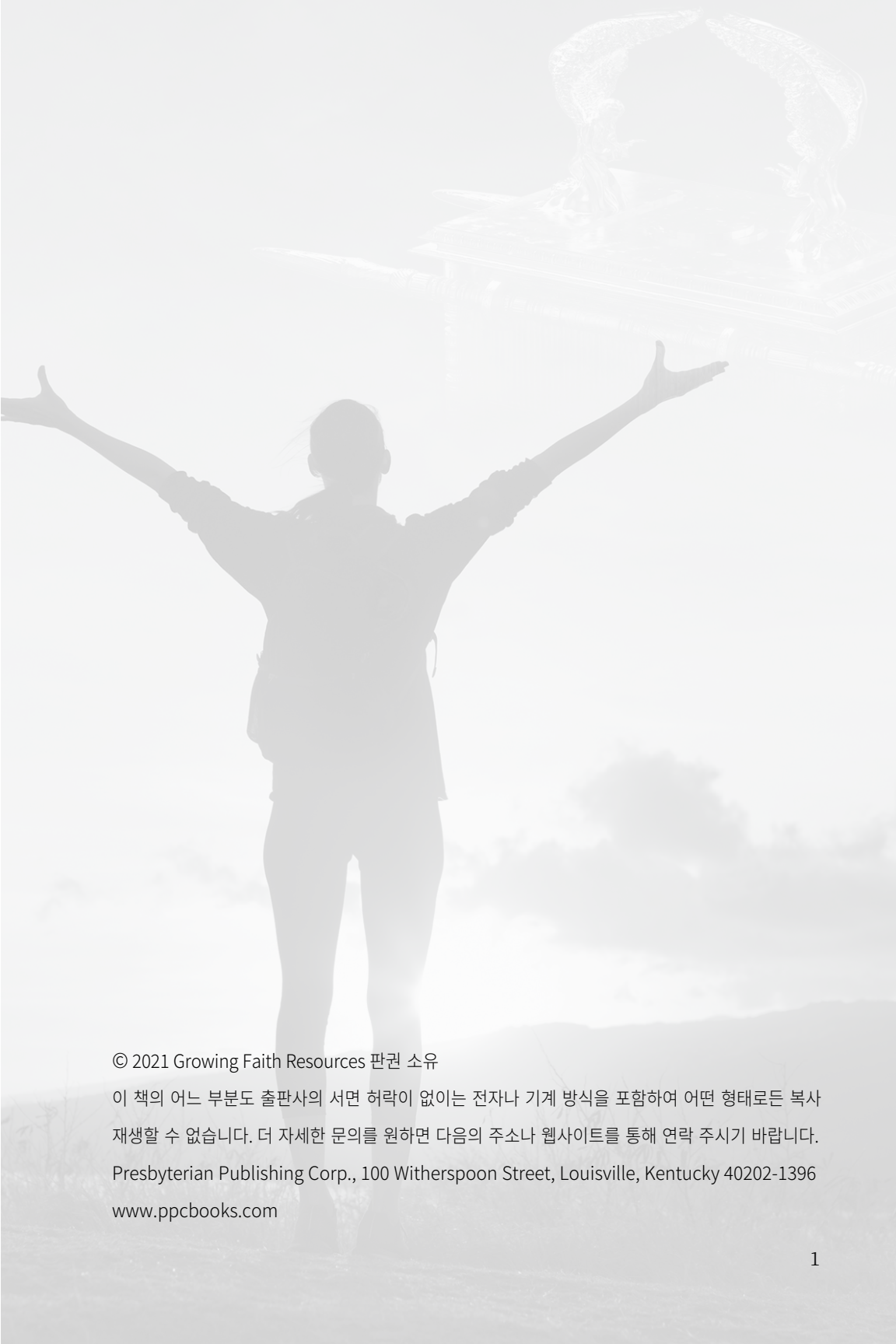


# 역대상

## 예배 회복

김준형 목사 지음





© 2021 Growing Faith Resources 판권 소유

이 책의 어느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락이 없이는 전자나 기계 방식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복사  
재생할 수 없습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면 다음의 주소나 웹사이트를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Presbyterian Publishing Corp., 100 Witherspoon Street, Louisville, Kentucky 40202-1396

[www.ppcbooks.com](http://www.ppcbooks.com)

편집자 박선규 목사

집필자 김준형 목사(미국장로교 언어지원실 선임 번역자)

감수자 심우진 목사(시애틀연합장로교회), 한만식 목사(유타한인장로교회),

이재호 목사(휴스턴한인중앙장로교회)

## 차례

편집자 노트 / 3

활용법 / 4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 / 6

총론 / 8

제 1 과	긴 족보는 왜? .....	10
제 2 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 .....	15
제 3 과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 .....	20
제 4 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	24
제 5 과	한 마음으로 .....	28
제 6 과	선한 의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 .....	32
제 7 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 .....	37
제 8 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	42
제 9 과	복을 끌어 당기는 마음 .....	47
제 10 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다윗 .....	52
제 11 과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은혜 .....	57
제 12 과	성전 건축 준비 .....	62
제 13 과	성전 봉사자 준비 .....	67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매 주일 함께 모여서 드리던 예배를 거의 1년 이상 동안 온라인을 통해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대면 예배를 드릴 때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목사님들을 통해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는 숫자가 줄어 들기 시작했고,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만큼 상황이 호전되었음에도 많은 성도들이 대면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교회마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온라인이나 대면에 상관 없이 공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예수님은 그의 양무리인 교회를 말씀(음성)으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시다(요 10 장). 따라서 각 지역 교회들의 미래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되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 나아가서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

남 유다가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를 잃은 근본적인 이유는 선지자들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예배 공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70여년의 시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의 회복이 아니라, 참된 예배의 회복이었다. 함께 모여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는 성전은 하나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킹덤 라이프 “역대상: 예배 회복”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제한을 받고 있는 이 시대 교회들에게 참된 예배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해 줄 것이다.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하는 교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바쁜 일정 가운데에서도 전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정성을 다해 이 교재를 집필해주신 김 준형 목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켄터키 루이빌에서  
박선규 목사

“킹덤 라이프”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며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핵심이었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고 훈련하기 위한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이다. 이 교재는 성경 지식을 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성경 공부 교재라는 말보다는 훈련 교재라는 말이 더 잘 어울린다.



## 마음 열기

그날에 공부할 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일상 속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먹한 분위기를 깨고 서로를 향해 그리고 말씀을 향해 마음이 열리게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



## 말씀 듣기

성경을 천천히 읽고 듣는 가운데 본문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려 보는 단계이다.

1. 말씀 듣기는 두 번으로 되어 있다. 처음 읽을 때는 본문을 다 함께 읽고, 두 번째 읽을 때는 읽기 전에 배경 설명과 도움말을 먼저 읽은 후에 본문을 읽는다. 두 번째 읽을 때는 책 안에 있는 지시를 따라 읽고 경청한다.
2. 본문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느낌과 인상을 얻는다.



### 말씀 깨닫기

1. 말씀 깨닫기에 나오는 4개(혹은 3개)의 질문들은 성경 본문을 하나의 이야기로 보도록 고안된 관찰 질문들이다.
2. 질문에 대한 답은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도록 했지만, 간혹 배경설명이나 도움말을 참조해야 할 때가 있다.
3. 인도자 교재에는 성경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질문들 외에 점점 심화되는 추가 질문들(해석 질문과,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게 하는 질문[거울 질문])들이 나와있다. 이러한 일련의 세 가지 질문들은 인도자가 모임을 나눔 식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다.



### 말씀 따라 살기

1.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 나누는 과정이다.
2. 첫 번째 질문은 개인에게, 두 번째 질문은 공동체(교회, 이웃, 나라, 세계)에 적용하는 질문이다.
3. 말씀 깨닫기 단계에서 본인이 직접 깨달은 것이 있다면 교재에 실린 실천사항 대신 그것을 실천하도록 하라.

1. 인도자는 가르치는 자(teacher)라기보다 참가자들이 말씀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생각과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진자(facilitator)임을 명심하라. 따라서 답안지를 읽어 주거나, 답을 길게 설명하는 것은 가급적 삼가도록 하라.
2. 그날의 모임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며, 참가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마라.
3. 각 단계별 지침 : 1시간을 기준으로 세 단계로 나누었다. 교회마다 혹은 소그룹마다 성경 공부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인도자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그 날의 내용을 다룰 수 있기 위해 미리 각 단락에 필요한 시간을 계산해 놓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시간이 충분치 않을 경우에는 인도자용에 나오는 것을 모두 다룰 필요는 없다. 해당 과에 나오는 ‘인도자를 위한 이과의 목적’에 충실하게 인도하기만 하면 된다.



###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15분)

1.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표 : 인도자가 그 날에 공부하고 실천해야 할 사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한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오늘의 말씀/찬송/기도
3.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 이 교재의 핵심 가치는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훈련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참가자들에게 말씀 따라 살기에서 실천하기로 결단한 것을 한 주간 꼭 실천하도록 독려하고, 다음 주 모임에 와서 실천한 것들을 나누도록 하라. 다만, 시간을 염두에 두면서 한 두 사람 정도 나누게 하면 좋을 것이다.
4. 마음 열기 : 시간을 염두에 두면서 한 두 사람 정도만 나누게 해도 괜찮다.
5. 말씀듣기 1, 2 : 첫 번째 읽을 때는 본문을 다 함께 읽도록 하자. 그런 후에는 배경 설명과 도움말을 읽거나 간략하게 설명해 줌으로써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하고, 두 번째 읽을 때에는 교재에 나와 있는 지시에 따라 읽고 경청하게 하라. 말씀 듣기의 목적은 성령님의 조명을 구하면서 본문의 전체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보게 하는 것이다. 마치 하늘에서 숲을 보는 것과 같이 말이다.



##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



### 말씀 깨닫기(30분)

1. 관찰 질문에 이어 관찰한 말씀의 의미 혹은 하나님께서 그 당대의 독자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해석 질문이 추가되어 있다. 또한, 관찰한 말씀에 나를 비추어 보게 함으로써 그 의미가 오늘 나(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혹은 하나님께서 그 당대의 독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오늘 나(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거울 질문)이 추가되어 있다.
2. 참가자들은 이러한 일련의 세 가지 질문에 답을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현재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게 된다.
3. 인도자는 답을 읽어주어서는 안된다. 인도자가 답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나눌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4. 시간적 제한이 있다면 매 질문마다 모든 참가자들이 답하게 할 필요는 없다.



### 말씀 따라 살기(15분)

1. 첫 번째 질문은 개인 적용이고, 두 번째 질문은 공동체 적용이다.
2. 첫 번째 질문을 하기 전에, “오늘 말씀을 공부하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해 볼지 나누어 봅시다”와 같은 유형의 질문을 하라.
3. 이 질문에 답하는 사람은 첫 번째 개인 적용을 위한 질문을 건너뛰게 해도 된다. 이 질문에 답하지 않거나 못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질문에 답하고, 그것을 한 주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하라.
4. 두 번째 공동체 적용은 성경 공부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실천하도록 고안되어 있다.

## 예배 회복

역대서는 아담에서부터 시작해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64장에 걸쳐 다룬다. 그 내용이나 분량이 다른 성경의 책들에 비해 손색이 없이 방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받아왔다.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반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고를 역대서의 책명에서 파악할 수 있다. 최초의 헬라어 성경 번역본인 칠십인역(LXX)은 역대서의 책명을 파라레이포메나로 번역했는데, 이는 ‘남은 것들’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의 역대서 제목은 ‘드브레이 하요뫼’으로 ‘시대의 일들’이라는 뜻이다. 이 제목을 통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역대서를 비중있게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 기록 목적

본서는 기원전 458년에 있었던 제 2 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된다. 1차 포로 귀환민들은 기원전 516년에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다. 하지만, 그후 약 70년 이상이 경과했으나 아직 택한 민족에게 임하리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았다. 그들은 또 이방 족속들로부터 계속 박해를 당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포로 귀환민들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율법을 따르지 않고 선민으로서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 포로 귀환민들로 구성된 선민 이스라엘은 또 다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대서 저자는 긴 족보를 통해 다윗 언약에 기초한 선민 역사의 정통성과 영속성을 강조하면서 포로 귀환민들을 격려한다. 또한, 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따라 번영과 패망이 결정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여호와 신앙을 위한 공식 제도였던 성전 제사 제도를 강조한다. 즉, 여호와 신앙의 회복과 성전 예배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라고 도전한다.

## 한 눈으로 보는 역대상

역대서 저자는 아담으로부터 포로 귀환 세대까지의 족보(1-9장)를 통해 선민 역사의 연속성과 정통성을 보여준다. 바로 뒤이어 10-29장에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요 가장 이상적인 통치자였던 다윗 왕의 업적을 기술한다. 그 가운데 10-20장은 다윗의 즉위와 삼십인의 용사들에 대해 기록함으로써 정치적 측면을(10-12장), 다윗의 언약궤 예루살렘 안치와 하나님이 허락하신 다윗 언약을 소개함으로써 신앙적 측면을(13-17장), 그리고 다윗의 정복 사업을 소개함으로써 군사적 측면을 다룬다(18-20장). 그리고 21-27장까지는 다윗 통치 후반 기에 있었던 인구 조사와 성전 건축 준비 사업을 다룬다. 다윗에 관한 20장의 기록 가운데 무려 일곱 장에서 성전 건축 준비와 관계된 제반 사항을 다루고 있는 것을 통해 볼 때, 본서 저자가 신정 국가의 중심이 되는 예루살렘 성전에 큰 비중을 두고 본서를 기록하였음을 엿볼 수 있다.

## 목차

- 제 1 과 긴 족보는 왜?(대상 3 : 1-24)
- 제 2 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대상 9 : 1-27)
- 제 3 과 하나님께 묻지 않으면?(대상 10 : 1-14)
- 제 4 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대상 11 : 1-10)
- 제 5 과 한 마음으로 (대상 12 : 23-40)
- 제 6 과 선한 의도만으로는 불충분하다(대상 13 : 1-14)
- 제 7 과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대상 14 : 1-17)
- 제 8 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대상 15 : 1-4, 11-15; 16 : 1-4, 37)
- 제 9 과 복을 끌어 당기는 마음(대상 17 : 1-19)
- 제10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다윗(대상 18 : 1-14)
- 제11과 다윗의 범죄와 하나님의 은혜(대상 21 : 1-18, 26; 22 : 1)
- 제12과 성전 건축 준비(대상 22 : 2-13; 28 : 1-19; 29 : 1-5 )
- 제13과 성전 봉사자 준비(대상 23 : 1-5; 24 : 2-5; 25 : 1, 7; 26 : 1, 6-9 )

# 긴 족보는 왜?

\*이 교재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위해 6-7페이지에 나오는 '인도자들을 위한 지침'을 꼭 숙지해주세요.

—인도자를 위한 이 과의 목적 : 이스라엘 민족의 긴 족보에 담긴 의미를 깨닫고,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을 이어감과 동시에 후손들에게 훌륭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게 한다.



## 말씀 깨닫기 위한 준비(15분)

오늘의 말씀 :

역대상 1 : 1~3; 2 : 1~4, 13~15; 3 : 1, 10, 17~24; 6 : 31~32, 49

찬송 : 207장(통 243,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기도 : 인도자 혹은 자원자

지난 주 말씀 적용한 것 나누기

마음 열기 :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자기 가문의 족보에서 자신의 이름을 보게 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말씀 듣기 1 : 본문을 다 함께 읽어 봅시다.

배경설명 및 도움말 :

인도자가 읽거나 혹은 미리 숙지해 온 것을 설명해 줌으로 참가자들이 두 번째 말씀을 듣는 동안에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얻도록 해줍니다.

배경설명 :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 재건(BC 516) 후에

Kingdom  
Life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여호와 중심의 신앙 공동체 혹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여 선민의 영광을 회복해 가야했다. 하지만, 이들의 신앙은 점점 식어져갔고, 이방인과 혼인함으로써 선민의 순수성까지 상실해 가고 있었다. 역대서는 이런 배경 속에서 쓰여졌다. 역대서 저자는 맨 먼저 이스라엘의 긴 족보로 시작한다. 이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그리고 역대서 저자와 동시대인들로 이어져 내려온다(1-9장). 역대서 저자는 이 족보를 통해 선민 역사의 영속성과 정체성을 밝혀 주면서, 자신과 동시대인들이 바로 족보에 언급된 이들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을 밝혀준다. 또한 이 족보는 이스라엘 12지파 중 특별히 다윗 가문(2-3장)과, 레위 가문(6장)을 상세하게 다룬다. 그 이유는 포로 귀환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17: 12-13절 참조)에 기초하여 신정 왕국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심어주고, 또한 성전 예배의 회복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도움말 :**

- 밋수아(3 : 5) : 밋세바의 다른 표기임.
- 스룹바벨(3 : 19) : 포로기 이후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유대 총독(스 3 : 8; 5 : 2).
- 하나냐의 아들(3 : 21) : 포로기 이후에 태어난 세대들.
- 핫두스(3 : 22) :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으며, 역대서 저자와 동시대 인물임(스 8 : 2-3).
- 레위의 아들들(6 : 1) :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바쳐진 자들로서 성막(성전)과 관련된 각종 업무를 수행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고 성소를 돌보는 직무를 맡음.

**말씀 듣기 2 :**

한 사람이 다시 본문을 천천히 읽고, 나머지는 긴 족보에서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에 유념하면서 경청합시다.



**말씀 깨닫기(30분)**

1. 역대상에는 몇 장에 걸쳐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역대서 저자는 왜 이렇게 긴 족보를 기록해 놓았을까요?(1-9장, 배경설명 참조)  
 역대상은 29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아홉 장(1-9장)에 걸쳐 이스라엘 민족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

▶ 역대서 저자는 왜 이렇게 긴 족보를 기록해 놓았을까요?(배경설명 참조)

이 족보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그리고 역대서 저자와 동시대인들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역대서 저자는 이 족보를 통해 선민 역사의 영속성과 정체성을 밝혀 주면서, 자신과 동시대인들이 바로 족보에 언급된 이들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점을 밝혀준다.

▶ **역대서의 족보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져 다윗 왕국으로, 그리고 역대서 동시대인들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연장선 상에 있다. 역대서의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이름이 분명히 그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여호와 신앙의 계승자들이다.

2. 이 족보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들(2-8장)중에서 장자 르우벤 대신에 어느 지파가 첫 머리에 배치되어 있습니까?(2 : 1-3)

이 족보에는 12지파 중 장자로 태어난 르우벤이나, 장자의 명분을 얻은 요셉 지파(5 : 1-2절 참조)대신에, 유다 지파가 맨 먼저 기록되어 있다.

▶ **2-3장을 읽어보면, 유다의 자손들 중에서도 다윗의 가문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2 : 9-17; 3 : 1-24). 역대서 저자가 본서의 일차 독자들인 바벨론 포로 귀환민들에게 특별히 다윗 왕조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배경설명 참조)**

다윗 왕조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이루어야 할 신정 공동체의 모델이었기 때문이다. 역대서 저자는 포로 귀환민들에게 다윗 시대에 누렸던 신정 공동체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기 위해 특별히 다윗 가문을 강조하고 있다.

▶ **당신의 가문에서 하나님을 매우 잘 섬겼던 조상들에 대해 나누어 봅시다.**

하나님을 잘 섬겼던 조상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이다. 만약 참가자들의 가문에 이러한 사람들이 없다면, 혹은 참가자가 1세대 신앙인이라면 그들이 속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신앙의 선배들에 대해 나누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3. 3 : 17-24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역대서 저자와 동시대의 사람들입니다(스 3 : 8; 스 8 : 2 참조). 역대서 저자는 왜 당대의 사람들을 다윗 가문의 족보에 기록했을까요?(배경설명 참조)

다윗의 가문이 역대서 저자와 같은 동시대인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 **역대서 저자는 당대의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왜 보여주고자 했을까요?**  
(배경설명 참조)

바벨론에 의해 유다 제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스라엘 민족은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영원할 것으로 여겨졌던 다윗 왕국이 무너지고 성전 또한 무너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역대서 저자는 그와 동시대의 사람들로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다윗의 후손들이 있음을 알려줌으로써 다윗의 시대와 같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의 영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소망을 주고자 했다.

▶ **하나님께서 심판 중이라도 다윗의 후손을 남겨두어 결국 예수 그리스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하셨다는 것은 온갖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점점 더욱 어두워져가고 있으며, 하나님의 심판(현재 및 종말론적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인류 구원의 역사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결국에 완성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한다.

4. **역대서 저자는 12지파의 족보에서 유다 지파 외에 또한 레위 지파를 길고 상세하게 소개합니다(6장). 역대서 저자가 레위 가문을 두드러지게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6 : 31-32, 49절, 배경설명 및 도움말 참조)**

도움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레위인들은 성전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담당했는데, 역대서 저자는 특별히 성전에서 찬송하는 임무(6 : 31-48)와 아론 자손들에 의한 제사를 언급한다(6 : 49). 포로 귀환민들은 성전을 재건하기는 했지만 성전을 지은 주 목적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은 아직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대서 저자는 레위 가문을 돋보이게 함으로써 포로 귀환민들에게 온전한 예배 회복의 중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 **당신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신약 시대의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성도 개인의 몸과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이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요 4 : 23 참조). 사도 바울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영적(합당한) 예배라고 가르쳐 준다(롬 12 : 1 참조).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드리는 것이다.



## 말씀 따라 살기(15분)

\*인도자는 참가자용에 나오는 두 개의 질문들을 다루기 전에 먼저 다음과 같은 식의 질문을 먼저 하라: “오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면서 성령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이 있다면 나누어 보고, 그 말씀을 한 주간 어떻게 실천해 볼지 나누어 봅시다.” 이 질문에 답을 하는 자들은 1번(개인 적용) 질문을 건너뛰어도 될 것이다.

1. 성경에서 자신이 가장 본받고 싶은 인물은 누구이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본받아 한 주간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이유에 대해 비록 그가 실수도 하고 겁도 많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자식까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람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자신의 여러 부족한 점들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말하고 행하기로 결단할 수 있을 것이다.

2. 우리 교회의 어린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우리 소그룹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나누어 보고 실천해 봅시다.

예 :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 자녀들과 및 그들을 지도하는 교역자나 선생님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기,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에 몸이나 물질로 지원하기 등.